

논산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6. 9. 22.(목) 14:00
- 장 소: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본관(2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9. 22.(목) 14:00 ~ 16:00
- 장 소: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본관(2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입법정책담당관
14:05~14:10	05 '	내빈소개, 개회사 등	전낙운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전낙운 의원			
14:10~14:25	15 '	주 제 발 표	지진호 건양대학교 교수(15분)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14:25~15:15	50 '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10 여분)
15:15~15:35	20 '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전체
15:35~15:55	20 '	청 중 토 론 (질 의 , 답 변)	참여자 전체
15:55~16:00	05 '	정 리 및 폐 회	좌장(전낙운 의원)

목 차

■ 주제발표

- 👉 논산시 관광활성화 방안 1
지진호(건양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 충남관광의 현재와 미래, 논산관광산업의 현주소 ... 15
최종인(충청남도 관광기획팀장)
- 👉 논산관광의 현재와 미래 23
황인혁(논산시 미래산업과장)
- 👉 논산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방향 31
김경태(충남연구원 연구부장)
- 👉 논산시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43
김용훈(논산시 기자협회장)
- 👉 탐정호 수변개발에 관하여 49
서정환(탐정호 상인번영회장)

■ 첨부자료

- 👉 관광특구 및 관광지 지정요건 관련 53
전낙운(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논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지 진 호

(건양대학교 교수)



목 차

- I. 논산시 관광자원 현황
- II. 현대인의 관광욕구와 관광트렌드
- III. 논산시 관광 활성화 전략
- IV. 맺는 말

I. 논산시 관광자원 현황

1. 논산 8경

			
관촉사	태정호	대둔산	계백장군 유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과 금강	노성산성

3

2. 역사관광자원

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고
	소계	국가 지정	도 지정	향토유적		
131	123	13	76	34	8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개태사지 석불입상	관촉사 석등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노성산성	명재 고택	종학당			

4

3. 지역 축제

축제명	축제사진	축제명	축제사진
떨기축제 (4월)		양촌 꽃감축제 (11월)	
강경 젓갈축제 (10월)		상월 고구마축제 (9월)	
연산 대추축제 (11월)		황산벌 전투 재현 (10월)	

5

II. 현대인의 관광욕구와 트렌드

1. 현대인의 관광 욕구

① 녹색관광

-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의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동시추구
- 농촌의 환경과 자연 생태, 체험, 도농 교류 확대



6

② 슬로우 라이프 (Slow life)

-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와 먹거리 브랜드화
- 현대문명의 과거회귀가 아닌 보다 인간적인 삶의 추구
- 패스트 푸드(라면, 햄, 소시지 등) → 슬로우 푸드(된장, 고추장, 김치 등)
- 슬로우 패션 : 친환경적 소재, 자연소재 옷, 리폼
- 노스텔지어 욕구 : 향토, 초가, 전통, 근대문화 유산 및 생활사의 관광자원화
- 슬로우 시티 지정으로 관광객 증가
(장흥군 유치면, 담양군 장평면, 완도군 청산면, 신안군 증도면,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전주, 경기 남양주, 경북 상주시, 청송군 등 10개소)



7

③ 감성경제(스토리텔링)

-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 경제시대 : 전 산업분야에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관광지 및 상품의 고유한 스토리 발굴 : 체험거리 개발
 - 춘천 마임축제 : 공지어 9999마리 이야기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뽕 할머니 전설
 - 55,000원 강릉관광상품



8

④ 복·융합형 관광

- 복·융합화(Convergence)는 블루오션(Blue Ocean)창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미디어, 콘텐츠, 기술융합 등을 문화 콘텐츠 관광자원으로 개발
- 의료관광(의료서비스+관광산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
- 에코투어(Eco-Tour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농촌관광)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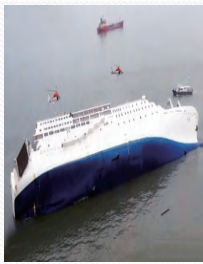
2. 관광 트렌드

① 세계관광 트렌드

			
모바일 관광	저렴한 숙박지	SNS 사용	현지인처럼 여행
			
힐링, 웰빙관광	나홀로 여행	사이클링	

10

② 국내관광트렌드

				
요우커(游客)	융복합 관광	안전관광	모바일관광	OR의 확대
				
지역의 숨겨진 매력	슬로우 트레블	DIY형 여행	중장년층	실속형 관광

11

III. 논산시 관광 활성화 전략

1. 훈련소 연계 관광 활성화

○ 연무 안심 시장 : 돼지고기 먹거리존



○ 군용물품 도깨비 시장



12

2. 강경젓갈 시장 연계 관광 활성화

○ 금강 황포돛배 운항



○ 젓갈축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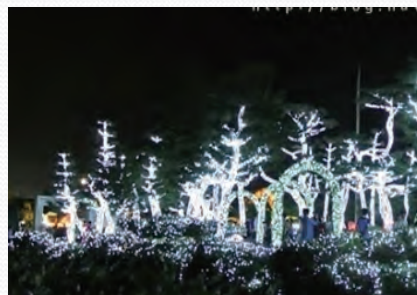
13

3. 탐정호 개발

○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단지 조성



○ 탐정호반 야영/캠핑 페스티벌



14

○ 탐정호반 힐링길 조성, 관광 이미지 제고



15

4. 유교문화자원 연계 상품 개발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국립 인성교육원 유치)



○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16

5. 관광 상품 개발

- 소액, 소규모의 논산 특산품 관광 상품 개발



17

IV. 맺는 말

- 관광 여건 개선 : KTX 논산역 유치, 세종시 기능 확대



- 관광산업을 논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18



감사 합니다

지정토론

- ◆ 충남관광의 현재와 미래, 논산관광산업의 현주소

최종인(충청남도 관광기획팀장)

- ◆ 논산관광의 현재와 미래

황인혁(논산시 미래산업과장)

- ◆ 논산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김경태(충남연구원 연구부장)

- ◆ 논산시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김용훈(논산시 기자협회장)

- ◆ 탐정호 수변개발에 관하여

서정환(탐정호 상인번영회장)

충남관광의 현재와 미래, 농산관광산업의 현주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기획팀장 최 종 인

1. 충남관광의 현재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한반도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은 조용한 해변과 생태의 보고 갯벌, 경치가 아름다운 국립공원과 산,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를 비롯한 백제와 내포의 역사문화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축제도 다양하게 열려 삶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특구, 온천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일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오락 따위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칭된다. 관광산업은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위하여 방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이들을 연계해 주는 관광사업체가 있으며, 이들 간 관광매개는 관광시장을 통하여 관광객들과 연결되어진다.

충남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자원은 자연자원, 인문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관광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이 적어 관광정책 차원에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2016년 전국의 관광지는 총 226개이며, 이중 충남에 26개가 지정되어 있고 관광단지는 전국 39개소 중 충남이 2개소가 있으며, 관광특구는 전국의 총 31개 중 충남에 2곳으로 아산관광특구와 보령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지들은 전국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아직까지는 개발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자연자원 중 자연공원은 총 10곳으로 국립공원으로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절경을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계룡산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명산이다.

칠갑산, 대둔산, 덕산도립공원과 천안 삼거리공원외 4개소의 시·군립공원이 있다.

자연휴양림은 15개가 있는데, 각 시군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해수욕장은 충남에 50개가 있으며, 지역별로 태안군에 30개소, 보령시에 17개소, 당진시에 2개소, 서천군에 각 1개소가 위치하여 태안과 보령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 다양한 변화와 개발을 시도하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여름 휴가도 추석명절도 지나긴 했지만,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 국민 여름 휴가 여행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은 강원, 경남에 이어 국내 휴가여행지 3위에 올랐다. 2015년 7위에 비해 무려 4단계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4.2%p 증가했다는 것은 충남이 관광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여름철 주요 관광지인 해수욕장 관광객 수를 보면 올 여름철 개장 이후 7월말까지 충남 도내 11개 해수욕장을 찾은 이들은 983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고, 해운대 등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와의 격차는 현저히 줄었다.

이는 지난 7.15~7.24까지 열흘간 펼쳐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에만 작년 대비 79만 명이 증가한 총 400여만 명이 다녀갔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 44만 명이 찾아와 함께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하였다.

지난해 7월 4일, 충남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3만 여명을 유치, 무려 39%나 관광객 수를 증가 시켰다.

충남은 대한민국 천주교 발상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성지와

유적이 있는 곳으로 2014년 서산 해미성지, 당진 솔미성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이후 이들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3~4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한, 안면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 하고자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도는 지난 6월 롯데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안면도 3지구 44만 2,745㎡에 콘도, 호텔, 실내외 물놀이시설, 글램핑장,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정상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충남을 두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제97회 전국체전-제36회 전국 장애인체전’이다. 충남은 이를 체육인의 행사로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과 연계한 이른바 ‘관광체전’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남 관광은 내년도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산항과 중국 룡옌항을 이어주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관광객의 대거 유입을 기대하고 이들의 눈과 발을 잡아둘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은 지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등 여러 강점과 관광시장 다양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치며,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앞으로의 충남 관광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2. 충남관광의 미래

‘서해안 시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문장 서두에 붙는 말이다. 1980년대 후반 대중국과의 교역으로 늘어난 무역량 때문에 생긴 말로 예전엔 중국과 수교를 안했기 때문에 서해안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역물동이 몰리는 부산 쪽으로만 발전이 있었는데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안이 경제 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과의 수교로 수출입이 늘어난 관계로 서해안의 항구들이 개발되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서해안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해안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 서해안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발길이 서해안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해안의 매력에 빠져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의 관광객수도 2012년 전체 9,300만 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충남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7개시군(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의 2012년 관광객수는 6,200만 명으로 충남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광의 행태를 보면 하절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위주의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름 성수기 집중현상으로 교통체증, 수용력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켜 충남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국민관광의 주요한 행태로 자리 잡았으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행태, 하계 및 동해안 편중 현상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가 창출되지 못하였다.

또한 서해안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해양관광활동은 해수욕, 해변경관 감상, 수산물 구매 시식, 일부 계층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등 단편적 활동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요트,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확산 및 5일제 수업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여가문화가 성숙한 미국, 유럽 등에서 육상관광의 대안으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세계 해양관광객수는 2010년 7.4억명에서 2020년 11.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산항의 완공과 서산비행장 민항기 이착륙,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대천~안면간 연륙교 건설 등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이 언제나 즐겁게 찾아 올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논산 관광의 현주소

논산시는 수도권과 호남권, 대전권과 서해안권을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식품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백제문화와 유교문화를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학 등 관기관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논산시는 13만 시민의 작은 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희망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을 만들기 위해 주요 역점 시책과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이라고 전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안정적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을 더욱 알차게 지원·육성해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장년층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취업하기 좋은 논산, 시민이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논산시는 훈련소 영외면회 허용지역의 관내 확정, 밀리터리파크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 등 육군훈련소와 연계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2017년 개교를 앞둔 국방대를 친환경 녹색 국방대학으로 건설하고, 국방 전력지원체계 연구소 유치와 국방산업 육성 등 명품 국방도시를 건설 등을 특화해야 한다.

논산을 수준 높은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추진 중인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과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근대

역사문화촌 조성,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고려시대 사찰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논산시를 대표하는 국민관광지인 탐정호 주변으로는 “탐정호 주변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뚝 높이기 사업(445억, 완료)과 농산물직거래장터, 딸기 체험지, 수상펜션, 전통문화체험과 병영체험지 등의 조성과 인근의 계백장군 묘 및 백제군사박물관을 연계하여 활발히 개발함으로써 논산시만의 특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충청도와 인접 시군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충청도로부터도 행·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나는 인생 후반부

행복한 삶의 요체를 두 가지로 압축한다.

첫째는 걷기요 둘째는 공부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 야망, 꿈은 구름 잡는 소리다. 이 세상

가장 미련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는 자라 했다.

‘재보만고건실무용(財寶滿庫健失無用)’, ‘재물과 보물이 창고에

가득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논산관광의 현재와 미래

논산시 미래산업과장
황 인 혁

① 관광개발 여건

① 충남내륙의 관문이며 대규모 배후시장 보유

- 서부내륙권 교통망의 중간 기착지로서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국도 및 간선도로가 관통하여 광역적 접근성 용이
-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 배후지역으로 60km권 내 대전광역시.전주시(320만명)가 위치하고, 150km권 내 서울특별시.수도권(3,400만명)이 입지

② 높은 인지도 보유

- 전국적으로 높은 도시 인지도 보유
- 군방거점도시, 육군훈련소 등 한정된 이미지이라는 한계
(※ 군사도시 인지율 전국1위, 공간인지율 전국 13위)

③ 고정 방문객 보유 및 풍부한 유교문화자원

- 영외면회에 따른 연간 약 130만 명의 고정방문객 보유
- 강경 젓갈과 딸기의 대표 산지이며 대표 축제 개최
(※ 강경 젓갈 : 국내 최대 젓갈 산지, 딸기축제 : 연간 50만명 이상 방문)
- 기호유교문화를 대표하는 풍부한 유교문화 자원 보유
 - 조선 후기 한국예학의 본산
 - 돈암서원 명재고택 등 총 60건의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분포(충남 유교문화자원의 약 18%)
 - 그 밖에 충효열 시설물 등 약 120여건의 비지정문화재 유교문화재 보유

④ 논산 전역에 다양한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 분포

- 대둔산 및 탐정호, 금강, 옥녀봉 등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 보유
- 사찰, 서원 및 향교, 계백장군 유적지, 노성산성, 견훤왕릉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보유

㉒ 관광개발의 장애 요소

① 지역관광 인지도 부족

- 지역 특색이 뚜렷한 해안도시나 광역도시로 관광객 집중
- 논산은 관광지라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태
 - 논산시의 주요 관광지점 유입객수 170만명으로, 충청남도 내 전체 13위(보령시의 1/9)
 - 지리적 위치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수가 낮으며, 관광지로의 인식 부족

(※ 충남 1위 보령시 : 1,535만명, 2위 아산시 : 1,339만명, 13위 논산시 170만명)
(인근지역 : 대전 1,851만명, 전주 700만명)

② 부족한 관광 경쟁력

- 논산 자체가 관광목적지라는 인식 부재로 주변 도시 대비 관광경쟁력 부족
(※ 대전/충남권 도시별 포털사이트 관광조회수 대전.충남 시군 중 13위 /월간 조회수 대전 약 80,000건 천안 약 46,000건, 논산 약 6,500건)

③ 특정 관광지로 편중된 방문

- 계절별 및 주중.주말 편차가 적은 안정된 관광형태
- 전체 관광객 중 약 42%가 탐정호 방문객
(※ 탐정호 75만명, 대둔산 31만명, 명재고택.백제군사박물관 각 12만명, 그린투어 11만명, 관촉사.개태사 각 10만명)

④ 부족한 관광 인프라

- 논산시내권 및 연무권 중심 숙박업소(노후된 모텔, 펜션)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
(※ 면회제에 따른 논산훈련소인근 펜션 증가추세)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음식점 및 대표 먹거리 부재

③ 관광개발 주요사업 현황

㉠ 훈련소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①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

- 위 치 :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
- 사 업 비 : 97억원(1차 71억원, 2차 26억원)
- 면 적 : 47,851m²
- 사업기간
 - 1차 사업 : 2013년 ~ 2015년(3년)
 - 2차 사업 : 2016년 ~ 2017년(2년)
- 사업내용 : 서바이벌 전투체험장 조성 및 영화.드라마 촬영을 위한 오피세트장 조성 등

② 호남선 KTX훈련소역 설치 추진

- 목 적 : 육군훈련소 입영 및 영외면회객 방문 등에 따른 국방 관련 특수한 교통수요 해결
- 시행주체 : 국방부(국토교통부)
- 운행방안 : 입소일(월.목), 수료.면회일(수) 특수목적 간이역
- 추진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30억원) 정부예산 반영 추진

(나)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화 구축사업

①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흥교리 등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
- 총사업비 : 20,520백만원(국비 6,310/ 지방비 10,810/ 기타 3,400)
- 면 적 : 20,000m²
- 사업내용 : 근대역사문화거리, 객주촌, 김대건신부 광장 등 조성

- ▶근대역사문화거리 : 근대건물 매입·리모델링 및 방송촬영장으로 활용
- ▶객 주 촌 : 근대건축물 6동 및 서구식 정원 조성. 숙박, 관광상품 판매 등 서비스
관광단지 및 방송촬영장으로 활용
- ▶김대건 신부 광장 : 강경성당 건물과 연계한 근대건축양식 기념관 건립 및 지역민,
관광객, 순례자 등을 위한 광장조성

②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강경읍 북옥리 일원(강경북옥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1,500 / 시비 1,500)
- 사업내용 : 강경의 역사·문화 소개 및 관광객에게 휴식 및 체험공간
제공 등

- ▶강경문화관 : 근대역사자원, 포구, 젓갈 등 강경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시설, 영상실, 자료실 등
- ▶게스트관 : 방문객 편의시설(북카페, 문화/영화 공연, 쉼터 등)
- ▶공방·창작실 : 문화체험 및 문화창작실
- ▶기타 야외시설 : 공연 및 조망시설 등(야외무대, 산책로, 정원 등)

③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위 치 : 노성면 병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8,400 / 도비 9,800/ 시비 9,800)
- 사업면적 : 연면적 90,000m², 건축연면적 5,435m²
- 사업내용 : 학술·연구, 라키비움, 교육·홍보, 휴양이벤트

(다) 관광·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①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 위 치 : 부적면 신평리 ~ 충곡리 탑정호 주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년)
- 총사업비 : 3,833백만원(국비 1,833 / 도비 750 / 시비 1,250)
- 사업내용 : 수변데크 설치 L=2.94km, B=1.8~2.0m

②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 시비 1,250)
- 사업면적 : 1,500m²
- 사업내용 : 수상펜션 6동, 데크시설, 경관조명 설치 등

③ 탑정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 위 치 :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
- 총사업비 : 8,520백만원(국비 3,937 / 도비 788 / 시비 3,467 / 민자 328)
- 사업면적 : 105,488m²
- 사업내용

- 체험시설(딸기학습전시관, 딸기농업체험장, 딸기재배온실 등)
- 휴양시설(딸기쉼터, 딸기정원) 등

④ 탐정호 힐링생태체험관

- 위 치 :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일원(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내)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총사업비 : 5,200백만원(도비3,100 / 시비2100)
- 사업내용 : 건축 727㎡, 연면적 942㎡(전시체험시설 등)

⑤ 탐정호 출렁다리 조성

- 위 치 : 부적면 신평리 ~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2019년
- 총사업비 : 9,400백만원(국비4,700 / 시비 4,700)
- 사업내용 : 출렁다리(현수교) 건설 L=600m, B=1.5m

Ⅳ 논산관광의 향후 개선방향

① 이미지 전환을 위한 논산 브랜딩 개발

- 관광객 인지형 논산의 맞춤형 관광 브랜딩 개발
 - 지역의 장점 및 발전 비전, 특성이 드러나는 논산만의 관광 슬로건 개발
- 예) 서울의 'Hi Seoul', 정선의 '아리 아리! 정선', 합천의 '水려한 합천' 등
- '논산=훈련소'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벗어나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딩 구축

②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발굴

- 영외면회에 따른 연간 약 130만명의 면회객 및 주요 방문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마련
- 논산훈련소를 찾는 영외면회객의 방문패턴 예측 및 다양한 의견 확보를 통하여 시설 및 콘텐츠 확보

- ▶휴양휴식 : 콘도미니엄, 리조트, 대중형 스파
- ▶문화레저 : 미니 영화관, 아트센터 등 예술문화 관련 시설
- ▶편의지원 : 이색 식음시설, 이색 취사시설, 로컬푸드 야시장 등

- 주중.주말 방문객 분석을 통한 주요 타겟 설정 및 필요성 분석

- ▶주중 방문객
 - 유아 및 학생(노란버스), 노인 및 단체 : 교육체험 및 문화활동
 - 훈련소 방문객 : 식도락 및 휴식, 레저 등의 활동 기대
- ▶주말 방문객
 - 가족방문객 : 자녀를 위한 에듀테인먼트 경험 중시
 - 학습단체 :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체험 기대

③ 부족한 자원 극복을 위한 콘텐츠 확보

-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콘텐츠 중심 사업 구상
-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상품 확충

- ▶KT&G 상상마당 논산과 프로그램 콘텐츠 공동 발굴 및 운영
(음악회, 어린이 창의체험 프로그램등)
- ▶관광수요 유인형 예술문화 콘텐츠(예술 공모전, 예술 작업실 제공 및 전시장소 선정)
- ▶인성교육진흥법(공포 2015.1.20.)에 따른 유교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④ 관광객 체류 기반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개발

- 숙박기반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명소 및 관광목적지 개발
- 숙박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관광형 숙박시설 도입

- ▶시유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콘도미니엄 유치
- ▶탐정호 인근 시유지를 통한 청소년 수련원 도입

논산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방향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김 경 태

1. 관광트렌드 분석

1) 10대 관광트렌드¹⁾

- 관광트렌드는 현재에도 존재하며,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고 관광소비자와 관광기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14)
- 관광트렌드 전망을 통해 관광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관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4년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제, 기술, 사회, 환경적 트렌드변화에 따른 관광트렌드를 예측하였으며, 10대 핵심 관광트렌드를 제시하였음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2014)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작성함

[표 II-13] 10대 핵심관광트렌드

구분	핵심 관광트렌드
1	중국, 한국관광시장의 지형을 바꾸다_ 중국인관광
2	관광, 경계를 허물다_ 융복합관광
3	관광의 기본 가치(3S : Safe, Sustainable, Social)존중 여행 확산_ 3S 여행 확산
4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생태계)_ 소셜미디어확대
5	즐거운 불편함, OR(Outdoor Recreation) 여행_ 아웃도어레크레이션
6	지역의 숨겨진 매력(hidden jewels)을 찾아 떠나는 여행_ 숨겨진매력여행
7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 슬로우 트래블_ 슬로우트래브
8	<u>스스로</u>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_ DIY여행
9	관광의 新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_ 중장년층 여가소비
10	칩시크(Cheap Chic)를 추구하는 실속형 관광소비 정착_ 칩시크 관광소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14

■ 중국인 관광(중국, 한국관광시장의 지형을 바꾸다)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 약 433만 명에서 2014년에는 전년대비 41.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제1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자리매김 함(일본(약 228만 명), 미국(약 77만 명) 순으로 방문)
-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으로는 쇼핑과 자연풍경 감상이 각각 62.2%와 56.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미식탐방 등으로 우리나라는 쇼핑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의 목적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관광객은 지리적접근성, 양국간 경제적, 인적 교류 증대, 한류 등의 영향으로 관광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다양한 관광활동과 경험의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융복합 관광(관광, 경계를 허물다)

- 융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가치와 감성지향, 창조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관광비즈니스측면에서도 농촌, 의료, 음식, 한류, 레저스포츠, 해양 등 타산업 분야의 관광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융합관광 영역의 발굴 육성을 통해 전통적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3S²⁾여행 확산(관광의 기본가치(Safe, Sustainable, Social)존중 여행 확산)

- 3S여행은 안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모두를 위한 관광의 관점에서 여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을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와도 함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대규모 재난 및 사고 등 외부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고들은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함

2) 과거 관광산업에서의 3S는 태양(Sun), 모래(Sand) 바다(Sea)를 말함

- 또한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모두를 위한 관광이란 관점에서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며 관광소비가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공정여행 등이 확산됨

■ 소셜미디어확대

-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모바일의 발달은 여행콘텐츠, 여행관리 등 여행 생태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대 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의 향상에 따른 관광정보의 전달체계체계도 변화하고 있음
-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관광산업에서도 SNS 등 소셜미디어를 고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관광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정보를 피드백함으로써 관광산업에서 위상이 커지는 추세임
- 향후 여행 시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위상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행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행 관련 조사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거래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 국민 소득수준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삶의 질에 대한 가치 부여 등으로 웰빙을 추구하고, 관광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추구하면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점차 증가함
-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고유가와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행태의 확산으로 자전거, 등산 등 친환경 레저스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됨

■ 숨겨진 매력여행

- 관광경험의 증가에 따라 획일화된 관광소비에서 다양한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밀착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명소 중심에서 지역의 거리, 마을, 시장 등 일상 생활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상에서 작은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하는 행태와도 관련되며 일상 공간들에 대한 여행경험과 가치지향적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슬로우트레블

- 빠른 변화와 성장위주에서 초래된 각종 문제점 및 폐해가 폐해로 등장함에 따라 빠르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 느림의 가치의 실현을 통해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슬로우 문화현상이 나타나게 됨
- 느림의 가치는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 문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여행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즉,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행을 즐기는 슬로우트레블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거나 힐링을 하는 목적으로 여행이 변화하고 있음

■ 소규모 그룹여행(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

- 개별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여행자 스스로가 여행의 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 및 관리하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별여행의 특징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보다 장소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현지인과의 교감 등을 추구하며 향후 개별관광객의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의 기본적 인프라를 개별관광객에 맞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여가소비

-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여가문화 소비계층으로서 중장년층이 부상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소비활동의 동기는 젊음, 향수, 자아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됨
- 삶의 여유가 생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테마를 정하여 휴식과 배움을 즐기는 자발적 ‘학습형 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감성과 가치 향유에 대한 욕구증가에 따라 추억여행을 즐기는 중년층들이 늘어나고 있음
- 중장년층의 여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관광소비층으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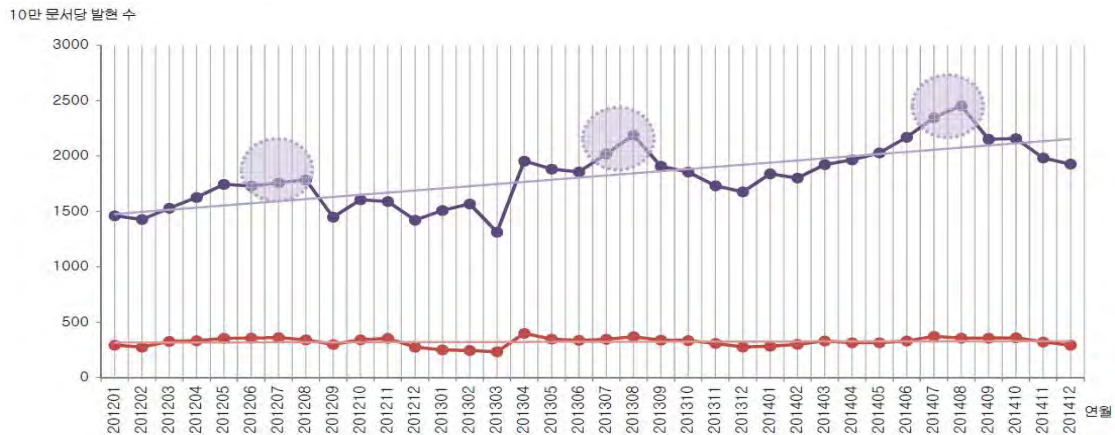
■ 칩시크 관광소비(Cheap chic)

- 반복되는 불황과 낮은 경제성장률은 단거리 여행의 증가, 휴일을 활용한 근교여행 선호, 휴가일수 축소 등 관광행태 및 트렌드 변화를 유도함
- 전반적인 관광소비 트렌드가 개인화, 특성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장의 세분화 전략을 통한 소비 규모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방안이 요구됨

2) 최근 3년간 국내여행 및 관광 트렌드

■ 관광관련 연관검색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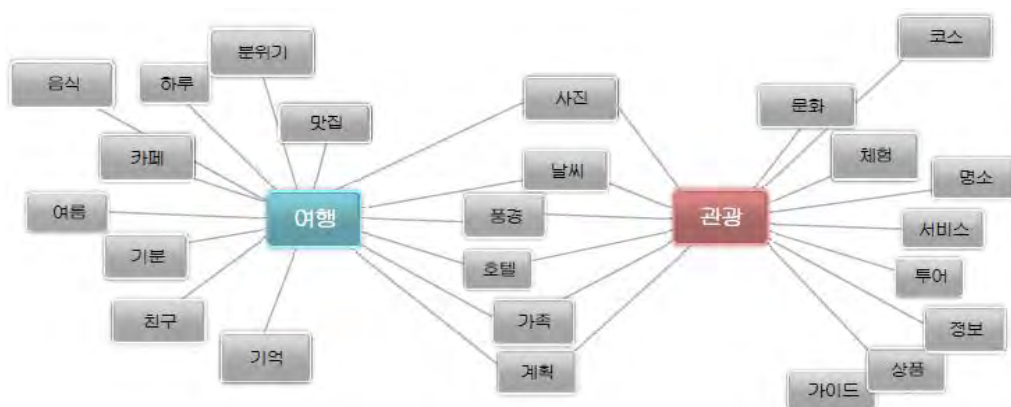
- 여행에 대한 언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광보다는 여행에 대한 검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은 여행의 1/6정도의 관심으로 언급량은 일정하나 여행에 대한 키워드는 검색의 폭이 좀 더 폭넓게 나타남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에 대한 BIG DATA분석 결과, 2015

[그림 II-6] 여행 및 관광 연관검색어

- 여행 및 관광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여행은 맛집, 친구, 기분, 음식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연관되는 반면 관광은 체험, 문화, 명소, 서비스, 상품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단어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여행과 관광의 공통된 연관어로 나타난 것은 사진, 날씨, 풍경, 호텔, 가족, 계획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과 산업 부문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에 대한 BIG DATA분석 결과, 2015

[그림 II-7] 여행 및 관광의 연관어 네트워크

2. 논산시 관광현황 및 시사점

1) 관광현황

■ 교통인프라

- 논산시 서측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KTX 호남선이 관통하며 동측으로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음
- 주요간선도로망(고속도로, 철도와 국도1호선, 4호선, 23호선)은 방사형태를 형성하며 논산시는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역임
- 주요교통시설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연무와 논산시내에 각각 1개소씩 총 4개소가 있으며 그 외 교통시설로 논산I.C와 서논산I.C, 논산역, 연산역, 강경역 등이 있음
- 2015년 호남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인근지역에 위치한 공주역을 통해 철도 이용자의 광역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수요

- 논산시의 내.외국인 총 관광객 수는 2010년 1,508,556명, 2011년 1,592,281명, 2012년 1,773,56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점별로 보면 탐정저수지, 대둔산, 논산 그린투어리즘과 같이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가 방문객 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본 사업의 대상지인 탐정저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62만 여명으로 논산의 관광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12년도 기준 논산시 관광객은 연간 177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청남도 전체 대비 2.02%에 불과하나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냄

- 논산훈련소 영외면회로 인해 매주 수요일 훈련병 1,700여명과 가족 8,000여명 등 연간 100만명 가량이 논산시를 방문함에 따라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시 꾸준한 관광객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관광자원 현황

- 대둔산, 노성산, 향적산 등의 산악자원이 논산 오른쪽을 띠 형태로 감싸고 있고, 탑정호수는 논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논산8경’은 탑정호를 비롯하여 논산의 8가지 아름다운 절경들을 지칭하는 말로 논산 관광의 재미와 정취를 더함
- 예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산에는 20여개가 넘는 서원과 향교, 그리고 고택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으며 관촉사, 쌍계사 등 논산시를 대표하는 사찰도 함께 보유함
- 특히 여러 서원들을 이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학강의 프로그램을 각 서원에서 진행하는 등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노력이 엿보임
- 축제자원으로 상월명품고구마축제, 황산벌전투 재현행사, 강경발효 젓갈 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가 가을인 9월에서 10월 경에 많이 개최되며, 논산 딸기축제의 경우에는 봄에,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의 경우 겨울에 개최되어 계절별 특색 있는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음
- 테마체험자원으로 논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자원 및 농촌자원 등을 바탕으로 논산그린투어리즘, 전통체험, 템플스테이, 예학체험 등의 테마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2) 시사점

- 논산시는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배후 지역으로 대전과 세종시를 두고 있어 관광객 확보에 용이함
- 방문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논산훈련소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자원, 역사자원, 농촌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최종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
- 또한 관광지로서의 마케팅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지로서의 일반인들 인식이 떨어지고 논산시 관광보다는 논산훈련소, 강경에 대한 인식이 높음
- 주변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 활성화 방안

1) 관광거점지구 조성

- 체류형 관광객들이 최종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집중화된 관광거점지구의 조성이 필요
- 기존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설조성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사계절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급의 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조성이 필요
- 또한 주변 자원과 네트워크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관광지를 연결하는 허니팟 방식의 개발 방식 추진

2)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지속 개발

-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관광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 기존 논산훈련소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함
- 또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의 개발을 통해 방문객 유치 효과가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개발

3) 관광마케팅 전개

- 논산시 관광이미지를 확립하고 홍보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활동의 전개 필요
- 기존 논산훈련소와 계백장군유적지 등의 호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 전개로 논산시 전체 관광 풍경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마케팅의 대상은 홍보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 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 전개 필요
- 지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권의 특화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한 마케팅 활동 전개

논산시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논산시 기자협회장
김 용 훈

논산시에 인접한 백제의 고도 부여나 공주시가 지역내에 산재한 고대의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삼아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백제문화제 개최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논산시는 공주나 부여에 비견할만한 고대 문화유적이 거의 부재한 상태여서 사실상 관광객 유치에 대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논산시가 천혜의 자원으로 자랑하고 있는 관광자원이라야 둘레길 27킬로의 탐정저수지와 풍광이 수려하기로 이름 높은 대둔산 수락계곡이 있기는 하나 두 곳 모두 관광마니아들의 시선을 끌만한 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일순시장 시절 소위 논산 8경으로 지정한 『관촉사 탐정지』, 『강경옥녀봉』, 『금강 개태사』, 『쌍계사』, 『노성산』, 『대둔산 수락계곡』 등도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육군 면회제도 부활』, 『국방대 유치』, 『기업유치』 등으로 논산을 찾는 걸음이 부쩍 많아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 내노라 할 위락시설 등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고급스러운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 자원화하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논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이정표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본다.

1 탐정저수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논산시민들의 제일 보물은 탐정지이다. 둘레길 27킬로미터의 저수지를 본격 개발하기 위해 전임 시장시 수문에서부터 일송정까지의 1,2킬로미터 구간을 146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했다.

상시 담수율이 높고 인구 유입이 많은 부분부터 본격 개발을 염두에 둔 터였다. 그러나 그런 전임자의 의지와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사업 취지가 무색하도록 해당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난개발을 빙자한 관주도의 허울 좋은 미래 청사진만 고집하고 있다.

이에 탐정저수지 개발을 둘러싼 현지 토지주·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주장한다

2,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지 지위 획득과 황산벌 전투재현행사의 백제문화제 공식프로그램 지정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당시 이완구 도지사는 논산시가 백제문화제 공동개최지가 돼야 하며, 황산벌 전투재현행사는 백제문화제 행사의 공식프로그램화를 주장하는 필자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단일 행사로 수만 명을 운집케 하는 흥행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격년제 개최 등으로 폄훼되고 있으며 아직 공동개최지의 지위는 확보가 난망하다,

무릇 문화재를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룰 것인가? 당연히 공동 개최지 위상 확보는 물론, 황산벌에서 매년 라제군 합동 위령제를 거국적인 국론 통합 의미를 곁들여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3.유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 개발 서둘러야한다

논산은 인근 부여나 공주처럼 역사문화유적은 많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조선조 조선성리학을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예학으로 집대성한 사계 김장 선생과 그 아드님 신독재 김집 선생, 그 문하의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 길 선생 등의 명현 거유를 배출한 말씀의 고장으로서, 노성의 궤리사 노성 은진 연산 3향과 그리고 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 등 10개의 서원이 있고 강경의 임이정과 팔괘정이 있다.

이를 현재 논산시가 조성중인 돈암서원 인근의 유교체험마을과 노성의 충청유교문화원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본격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논산시의 지명 “ 말씀의 고장 논산 ”으로써 의 정체성을 확립 해야한다.

1914년 인근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은 논산 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
해 논이 많고 산이 많아서 논산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이 나
라 방방곡곡 논산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뭐래도 우리 논산을 말씀 논 [論]자를 써서 논산 [論山]이라 주장한
것은 위대한 선현들의 말씀이 산을 이룬 위대한 의미가 담긴 것임을 애써
강조 한다

5, 논산시가 제정한 논산 8경의 재정비와 관리 철저를 주장한다,

논산시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논산 8경으로 관촉사 탑정지 옥녀봉과 금강,
개태사 대둔산 ,쌍계사 노성산성 계백장군 유적지 등을 들고 있으나 관리는
소홀하고 이게 논산의 자랑거리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도 많다.

또 제1경 관촉사는 언필칭 폐허에 다름 아닌 방치수준이다, 도대체 전일
순 전시장이 그려 냈던 관촉사 주변 정비 사업 계획서는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가? 차제에 논산 8경의 재정비 또는 특단의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6, 논산 관광 정책 수립이전에 산재한 축사의 청정 환경대책부터 내놔야

논산시 관내 곳곳에 3,000여개의 가축 사육축사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 한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를 옹골게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7, 최고의 관광자원은 웃는 얼굴, 친절한 응대다.

육군훈련소 면회제도가 부활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머지않아 국방 대도 문을 열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논산을 찾아드는데 제일 큰 관광자원은 무엇이겠는가? 그를 맞는 시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이다, 친절한 응대다 이를 위해 논산시가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탐정호 수변개발에 관하여

탐정호 상인번영회장
서 정 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기업의 오너들이 임·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귀중한 지침서이며, 이는 모든 사업의 근본은 현장에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즉, 현장의 소리나 현황 등을 도외시한 정책이나 현안은 성공률이 희박하다고 본다.

“탐정호의 개발”이라는 말은 과거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사용된 용어이다. 탐정호의 현실은 어떠한가? 또 과거처럼 갈 것인가? 과거 수십 년간 국회의원 및 시장님등도 개발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대기업 등을 노크하였다.(현대, 삼성, 한화 등)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고, 충청남도는 3농 정책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탐정호와 창조경제, 3농 정책을 연계함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일정 지역의 조기 해제하여 자체 개발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과 두 번째,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업 유치 후, 자체 개발 및 용지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사업성의 결여등의 이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전자를 택할 수 밖에 없질 않은가?

전자와 후자도 어려우면 탐정호 개발은 메아리로 밖에 볼 수 있지 않는가?

논산의 내방객(면회객, 관촉사 내방객, 기타)과 논산시민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쉼터등의 부족으로 지역의 부의 유출을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인가? 충분한 상품성이 있는 적지가 있음에도 규제라는 명목하에 개발을 억제함은 너무나 억울한 처사가 아닌가?(사유재산 규제)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조기에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례 :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해제) 또한, 올해를 창조경제의 기폭년으로 정하고 있다.

논산시도 발을 맞추어 나아감이 어떠한가?

농촌공사의 미래 탐정호 개발 계획을 보면 현실성, 사업성, 접근성, 기본 인프라등이 고려된 사업 내용인가? 검토해 볼 사항이다. (정화조 관로매설 비용 : 수백억소요, 개발지역의 4계절 담수 현황 등) 논산시는 여기에 안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질 않길 바란다.

작금의 현실성 등이 결여된 사업 현황을 보면 농촌공사 주도한 「대둔산 전원 주택사업」과 논산시가 주도한 「연산 문화마을단지」 등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업 성패 여부는 입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내포신도시, 세종시, 남공주 KTX역사 등은 다분히 정치적인 맥락이 깔려있다고 본다.

입지의 선택은 『상업성』, 『접근성』, 『환급성』, 『투자성』, 『기본 인프라』 등

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장고는 여기서 끝났으면 한다.

조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간다”라는 논산시장님의 말씀처럼 적지를 해제하여 자체 개발함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한다고 본다.

첨부자료

관광특구 및 관광지 지정요건 관련

전 낙 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 첨부자료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 요구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의원

□ 요구내용

1. 국민관광지 관련하여

- 관광특구 내지 관광지 지정요건 및 절차
- 전국 관광지 및 관광특구 현황, 충남 시군별 지정현황
- 관광특구 및 관광지에 2011~2015년간 투자된 예산과 2016년 투자계획

□ 답변내용

1. 관광특구 및 관광지 지정요건 및 절차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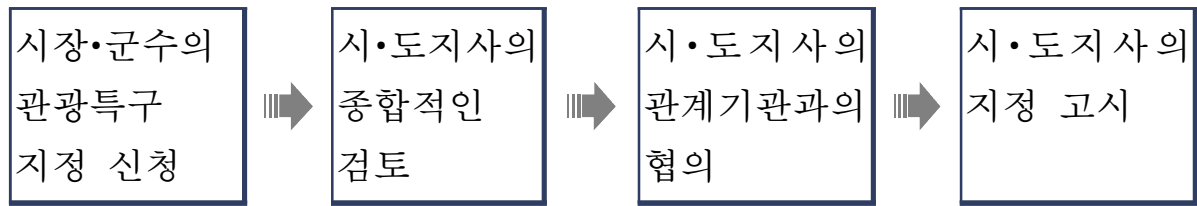
○ 기본 개념

-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특구 지정요건(진흥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지 정 요 건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전문 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10%)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관광특구 지정절차



나. 관광(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 기본 개념

-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지정 요건(시설 요건)

- (관광지)

-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추 수 있음.

- (관광단지)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중 1종 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중 1종 이상, 총면적이 50만㎡이상인 지역
- 접객시설 및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추 수 있음.
- 총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 관광(단)지 지정

- 관광(단)지 지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해진 것처럼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광(단)지 지정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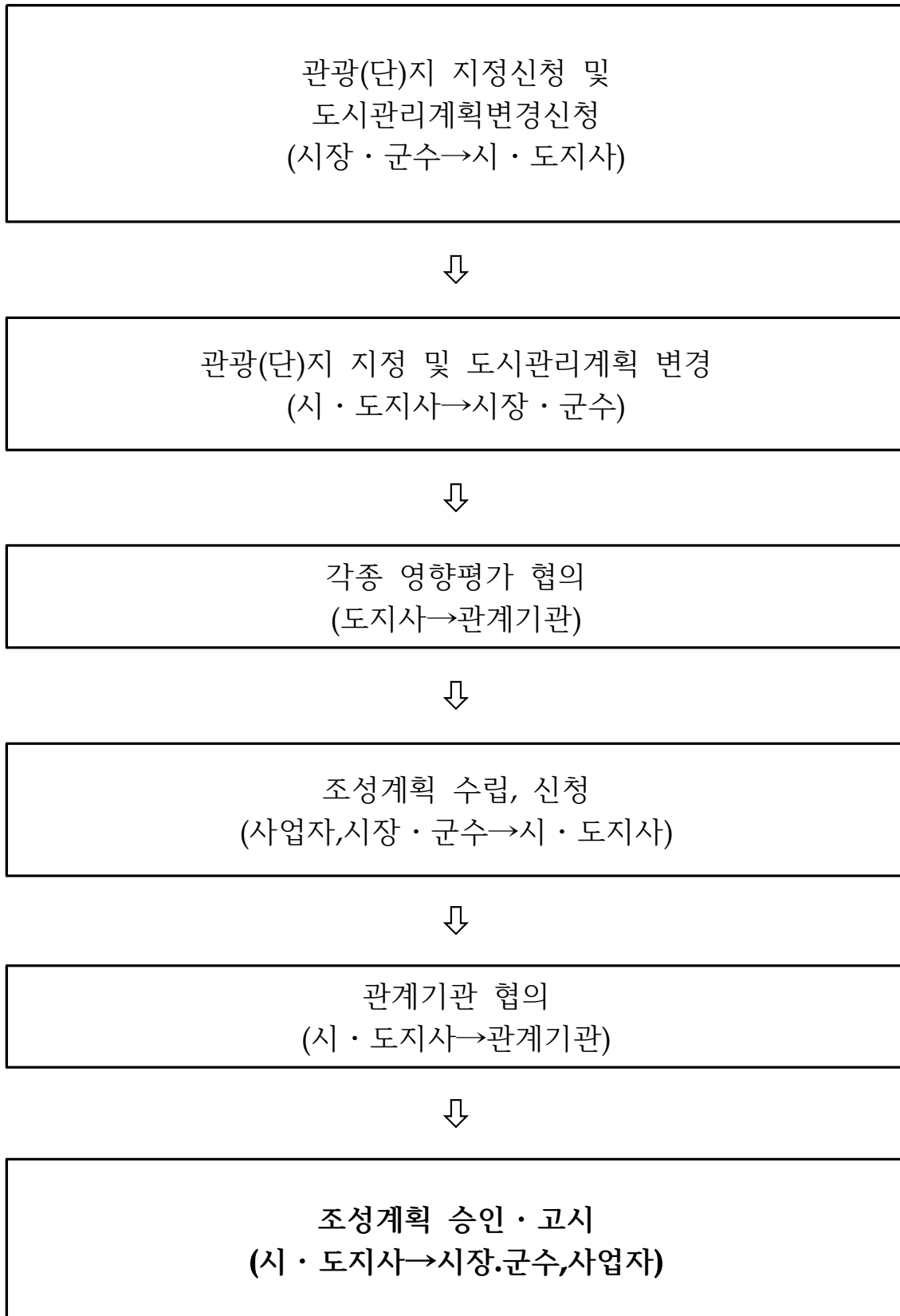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관광지의 경우 조성계획은 시장·군수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므로 민간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
- 관광단지는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 가능

○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류

- 관광지 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 관광지 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개재한 서류
 - 관광객 수요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 관광지 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 관광지 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아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
- ⇒ 시·도지사는 관광지 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흐름도



2. 전국 관광지 및 관광특구 현황, 충남 시군별 지정현황

가. 전국 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 전국 관광지 현황

(2015. 12. 31.)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1)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황령산,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경 기	13	대성, 산장, 수동, 소요산, 장흥, 용문산, 신록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강 원	40	대관령 어홀리, 등명, 연곡, 옥계, 주문진, 삼포·문암, 송지호, 화진포, 망상, 무릉계곡, 추암, 맹방, 삼척해수욕장, 장호, 초당,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후곡약수, 오색, 고씨동굴, 마차탄광촌, 영월온천, 간현, 내설악용대, 방동약수, 오토 테마파크, 아우라지, 화암, 고석정, 직탕, 구곡폭포, 청평사, 호반, 구문소, 미탄마하생태, 팔봉산, 홍천온천, 광덕계곡, 어답산, 유현문화
충 북	22	괴강, 수옥정, 다리안, 온달, 천동, 구병산, 속리산레저, 늘머니과일랜드, 송호, 장계, 무극, KBS제천촬영장, 계산, 교리, 금월봉, 능강, 만남의광장, 제천온천, 능암온천,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충주호체험
충 남	26	곰나루, 공주문화, 마곡사, 마곡온천, 난지도, 삼교호, 왜목마을,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서동요역사, 구드래, 간월도,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신정호, 아산온천, 덕산온천, 예당, 용연저수지, 천안종합휴양, 태조산, 칠갑산도립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남당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의전,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 윤일암 반일암
전 남	28(1)	대구도요지, 도립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울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대광해수욕장, 불갑사, 마한문화공원, 성기동, 영산호 쌀문화테마공원, 영암 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 우산도-장재도, 녹진, 이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레, 문경온천, 상리, 다덕약수, 오전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영주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예천삼강, 예천포리, 울릉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탐산온천, 용암온천, 청도신화랑, 청도온천, 청송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 남	22(2)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송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사천비토,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중산, 금서,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하동목계(청학동), 농월정, 미송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6	돈내코, 미천굴, 용머리, 제주남원, 수망, 토산, 표선, 광지, 금악 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묘산봉, 오라, 제주돌문화공원, 함덕해안, 협재해안, 봉개휴양림
합 계	227(4)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 관광지

○ 전국 관광단지 현황

(2015. 12. 31.)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km ²	개발주체	비고 (지정/조성계획)
1	보 문	경북 경주시 산평동, 천군동 일원	8.515	경북관광개발공사	'75. 4/'73. 5
2	중 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71. 5/'78. 6
3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92. 9/'94. 6
4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4.019	경북관광개발공사	'93.12/'97. 3
5	강 동	울산 북구 신하동, 무릉동, 장자동 일원	1.356	미정	'09.11/'14.12
6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62	경북관광개발공사	'03.12/'05. 4
7	동 부 산	부산 광역시 가장군 가장읍 사랑리 일원	3.663	부산도시공사	'05. 3/'06. 4
8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4.930	강원개발공사	'05. 9/'06. 4
9	광주 어등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732	광주도시공사	'06. 1/'07. 4
10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4.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12/'06.12
11	여수경도 해양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65	전남개발공사	'09.12/'09.12
12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032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12/'09.12
13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삼리 일원	3.008	창원시	'11. 4/'15.3
14	송 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학익동 일원	0.097	인천도시공사	'08. 3/'실효
15	여수 화양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안포리	9.989	일상해양산업주	'03.10/'06. 5
16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자정면 월송리 일원	11.288	한솔개발주식회사	'95. 3/'96. 1
17	김천 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424	주식회사우촌개발	'96. 3/'97.12
18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곡리 무어리 잔교 일원	4.228	(주)보광	'98.10/'09. 3
19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367	(주)용평리조트	'01. 2/'04. 3
20	웰리 힐리파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42	신안종합리조트(주)	'09. 6/'12. 7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	개발주체	비고 (지정/조성계획)
21	홍천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7,053	(주)대명레저산업	'08.11/'11. 1
22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3196-2번지 일원	3,001	남영산업(주)	'08.12/'08.12
23	고흥 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58	(주)태인개발	'09. 5/'09. 5
24	무릉도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홍천군 북방면 잔자리 일원	4,985	(주)에이엠엘앤디	'09. 9/'09. 9
25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산대리 일원	6,419	마우나오션개발(주)	'09.12/'09.12
26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41번지	1,786	신영종합개발(주)	'10. 2/'10.5
27	설악 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외 101필지	1,314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	'10. 8/'10. 8
28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704	(주)골드힐	'11.12/'13. 6
29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0,654	(주)보광제주(주)제주해양과학관	'91. 6/'06. 1
3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서귀포시 상례동 633-3번지 일원	0,744	(주)버자야제주리조트	'05.10/'07.12
31	고성 텔피노골프 앤리조트	강원 고성 토성면 완암리 403-1번지 외 54필지	0,898	(주)대명레저산업	'12. 4/'12. 6
32	한원 춘천	강원 춘천 신동면 혈동리 산95번지 일원	0,743	(주)한원, (주)한원개발	'12. 6/'12. 6
33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갈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0,645	(주)오션빌	'12. 7/'12. 7
34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관대리 가산리 대리산양리 일원	2,743	미정	'09.10/미수립
35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리622번지 일원	0,523	(주)록인제주	'13. 12/13.12
36	백제문화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장리 신리 호암리 오소리 일원	3,026	(주)호텔롯데	'15. 1/'15. 1
37	원주 더네이처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1,444	(주)경인개발	'15. 1/'15. 1
38	양양 국제공항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118	(주)새서울레저	'15.12/'15.12

나. 전국 관광특구 현황

(2015. 12. 31.)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km ²)	지정일
서울(6)	명동·남대문·북창	명동, 화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97.0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화동·을지로57가·산대동 일원	0.58	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가6가·서단동·관철동·관수동·예자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발달·송인동 4가리	0.54	06.03.22
	잠실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2.31	12.03.15
	강남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14.12.18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랑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08.05.14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94.08.31
경기(3)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 산장·2동·자산동 송북동 일원	0.49	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15.08.06
강원(2)	설악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94.08.31
	대관령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 일원	428.26	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9.22	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수면 사나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43.75	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가리)	4.45	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산수리 일원	3.71	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항동·웅천읍 독산·관동리 남면 앞천리 일원	2.52	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무풍면	7.61	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50	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78.02	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89	07.09.28
경북(3)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일원	1.85	10.01.18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사창리 일원	4.82	97.01.18
	미륵도	통영시 마수·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94.08.31
13개 시·도 30개소		-	2,635.4	

다. 도내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현황

○ 관광(단)지 지정현황 : 28개 지구 17,807km² (12개 시·군)

· (관광지) 26개 지구 14,574km², (관광단지) 2개 지구 3,233km²

(2015. 12. 31.)

관광지명		위 치	면적 (㎡)	사업 기간	지정일	추진현황
총 계		28지구	17,806,807			
소 계		28지구	17,806,807			
지 정 관 광 (단) 지	천안종합휴양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748,020	'97~'17	'96. 7. 2	민자유치 중
	용 연 저수지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220,697	'88~'13	'88. 7.12	관광지지정 해제중
	태 조 산	천안시 유량동	331,000	'87~'92	'85. 7.24	조성완료
	곰 나 루	공주시 웅진동	139,000	'87~'07	'87. 7.24	조성완료
	마 곡 사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125,861	'92~'17	'93.11. 9	민자유치 중
	마 곡 온 천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621,592	'99~'16	'96. 9.16	사업중단
	공 주 문 화	공주시 웅진·봉정동	1,029,179	'97~'17	'96.10.24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대전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1,586,769	'89~'15	'69. 1.21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무창포해수욕장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354,000	'88~'15	'86. 8.20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죽 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2,783	'95~'13	'90. 4.19	민자유치 중
	신 정 호	아산시 방축동	271,169	'85~'16	'71. 5.20	민자유치 중
	아 산 온 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844,000	'92~'15	'91. 3.15	민자유치 중
	간 월 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43,695	'03~'15	'00. 5. 4	민자유치 중
	구 드 래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48,515	'84~'00	'69. 1.21	조성완료
	서 동 요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174,508	'10~'16	'08.11.20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금강 하구둑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175,384	'94~'15	'93. 9.22	민자유치 중
	춘장대해수욕장	서천군 서면 도둔리	298,930	'97~'17	'97. 4.21	민자유치 중
	칠갑산도림온천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140,102	'96~'16	'95.10. 5	사업중단
	덕 산 온 천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723,999	'92~'20	'87. 6. 3	민자유치 중
	예 당	예산군 웅봉면 후사리	143,000	'86~'15	'86. 6.28	조성완료

관광지명		위 치	면 적 (㎡)	사업 기간	지정일	추진현황
	남 당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66,200	'06~'13	'05. 4.19	토지매입, 민자유치 중
	안 면 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5,272,905	'92~'20	'91. 2.22	토지매각 절차이행 중
	만 리 포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321,562	'10~'20	'10. 5. 6	민자유치 중
	삼 교 호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1,583	'83~'20	'83.10.10	민자유치 중
	난 지 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155,440	'07~'13	'00. 9. 7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왜 목 마 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33,876	'06~'20	'02. 2.26.	조성사업, 민자유치 중
	'골드힐카운티 리조트관광단지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1,691,643	'13~'20	'11.12.30.	공사착수 준비
	백 제 문 화 지 관 광 단 지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1,541,466	'14~'17	'14.12.30.	조성사업 중

○ 관광특구 지정현황

(2015. 12. 31.)

구 분	보령 해수욕장	아산 온천
지 정 일	1997.01.18.	1997.01.18.
위 치	보령시 신흥동 웅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음봉면 신수리 일원 (온양·도고·아산온천, 신정호 유원지)
면 적	2.520km ²	3.710km ²
사 업 비	608,642백만원	440,713백만원
주요사업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죽도관광지 개발, 석대도 관광지(미지정) 개발, 갯벌생태체험장 기반시설 조성, 냉풍욕장 관광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야시장 조성, 로테오거리 조성, 가로등 증설 및 가로수 식재
특 이 점	보령머드축제(대한민국 대표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연계관광	냉풍욕 체험 및 석탄박물관 운영	온양온천 시티투어 등

3. 관광지 및 관광특구 투자현황

○ 2011~2015 투자예산 및 2016 투자계획

- 관광(단)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군비	비 고
계	130,198	30,046	100,152	
2011년	17,465	6,720	10,745	
2012년	11,895	4,361	7,534	
2013년	71,307	4,194	67,113	
2014년	16,708	10,071	6,637	
2015년	6,223	2,000	4,223	
2016년 계획	6,600	2,700	3,900	

- 관광특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군비	비 고
계	3,420	1,710	1,710	
2011년	1,800	900	900	
2012년	-	-	-	
2013년	-	-	-	
2014년	1,000	500	500	
2015년	620	310	310	
2016년 계획	-	-	-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 요구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의원

□ 요구내용

1. 충남도내 도지정 문화재 시군별 현황
2. 도지정 문화재 지정절차 및 국가문화재로 승격절차
3. 도지정 문화재에 2011~2015년간 투자된 예산과 2016년 투자계획

□ 답변내용

1. 충남도내 도지정 문화재 시군별 현황 : “엑셀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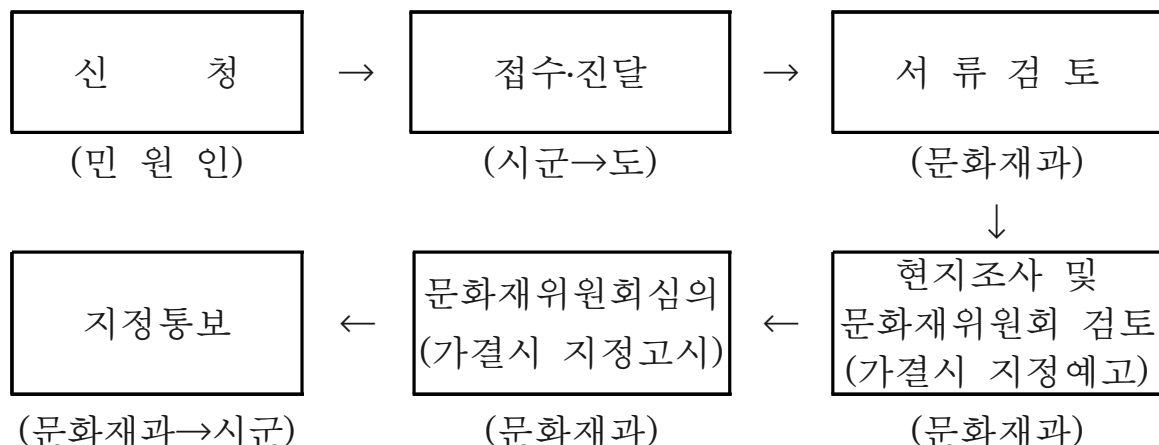
2. 도지정 문화재 지정절차 및 국가문화재로 승격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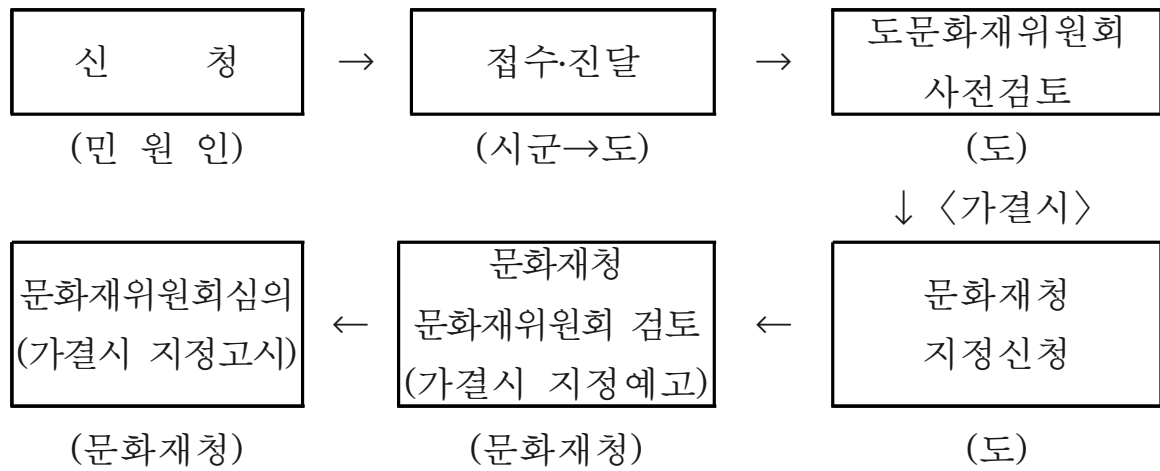
⇒ 관련법규 :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

- 1) 신청서 1부
- 2) 당해문화재의 작자·유래·전설·현상설명서
- 3)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
- 4)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기록물 등 참고사항
- 5) 기타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지정에 필요한 사항

나. 도지정 문화재 지정절차



다.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절차



3. 도지정 문화재에 2011~2015년간 투자된 예산과 2016년 투자계획
: “엑셀로 제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